

‘정의로움’으로 함께 나아가기

- 발전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전환이 정의로운 전환

김도아 기후정의팀 회원,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이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아홉 개 지역 발전소에서 일하는 한국플랜트서비스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기후정의활동가들이 달려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문제와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의 일터를 멈추는 사안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8천 명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수가 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장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내어놓으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를 하는 중이다.

파업 이후,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요구가 현실과 맞닿을 수 있도록 논의를 진전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이들이 모여 발전노동자들과 다시 공론의 장을 열어가기로 했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사람’이라는 알맹이를 외면하고 대의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주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싸우는 운동이 되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프로젝트를 위해 모인 사람들은 지역도, 그간 해온 활동도 달랐지만,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안으로 ‘공공성을 확보’한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자 전 세계는 탄소감축을 위해 ‘탈석탄’, 즉 석탄발전 중지를 계획했고, 한국도 2025년 태안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발전소 폐쇄를 계획했을 뿐, 대책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계획들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규모 고용상실과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빠



▲ 11월 28일, HPS지부 하동지회 조합원들과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 김도아

져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고용’의 문제만이 아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말하지만, 정부 주도의 공공재생에너지발전은 빠져있다. 이미 과거로부터 예고되고 경고된 기후위기와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숙제에 그저 벼락치기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과 생활의 필수재이자 공공재인 전기를 생산하던 발전노동자들은 한순간에 기후악당으로 내몰리고, 하루아침에 직장폐쇄를 ‘통보’받았다. 그 안에서 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는 허울뿐인 직무 전환과 전직지원이라는 무책임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기를 쓰는 모두의 문제’로 연결하고 확장해야

여섯 달 만에 이루어질 발전동지들과의 만남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신이 없었다. 하동으로 달려가 만난 노동자들은 예상보다 더욱 냉정했고 단단했다. 발전노동자로서, 발전소 폐쇄의 주요 당사자로서 이들은 이미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현장 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가 막을 수 없는 일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일자리의 확보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민영화의 흐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공공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거창한 대의를 누구보다도 먼저 체험하고 있었다.

또한, 현실적인 나머지 불안을 감추고자 냉소적인 단어들로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고용의 불안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예상하며, ‘기후활동가들이 발전소 폐쇄만을 위해 자신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를 잃은 이



▲ 끊임없이 시도되어온 발전민영화의 흐름을 짚어보며 공공성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사진: 메밀

후에 대한 걱정과 평생 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고작 내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 없을 거라는 예상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그로부터 오는 깊은 서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뜰 때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일상생활 속 모든 순간에 전기를 사용한다. 지구에 얹혀살면서 기후위기를 회피하고 방관할 수는 없다. 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전노동자들의 삶의 위기를 묵과할 수는 없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앞서서 욕심내지 않았더라도, 무관심과 방관으로 편안하게 생활했던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해야 한다. 정부는 대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힘없는 이들의 일상을 빼앗는 행위를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의 대안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환경은 물론 지역소멸의 위기도 막아내는 것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나아가는 길이 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해 소외되기 쉬운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운동이 되길 희망한다. 나는 그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 믿는다. 